

 보건복지부		보 도 참 고 자 료		
배 포 일		2020. 4. 22. / (총 5매)		
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배분TF	과 장	최 종 회	전 화	044-202-3070
	과 장	홍 정 익		044-202-2860
	담 당 자	오 승 민		044-202-2861

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,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격려 방문

- 김강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(보건복지부 차관)은 4월 22일(수) 오후 3시에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를 각각 방문하여 코로나19 치료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였다.

* 국립중앙의료원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

국립정신건강센터 :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

- 국립중앙의료원(원장 정기현)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중앙감염병 병원*으로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.

* 감염병예방법 제8조의2(감염병병원) 및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(고시)

-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환자 치료 관련 임상 컨트롤타워인 ‘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’를 구성(‘20.1.31~, 기존 중앙임상TF)하여 현재까지 총 25회의 회의를 통해 확진환자 진료지침을 마련하고, 관련 연구사업 배정, 국제협력, 임상적 특이사항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.

○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환자가 급증하던 2월 23일부터 '코로나19 전원(轉院)지원상황실'을 운영하여 4월 21일 18시 기준 총 120명의 중환자를 서울·경기 등 타 시·도 병원으로 전원 지원하였다.

- 아울러 기존 병상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용 병상으로 확대(총 78병상)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집단발병 요양시설 및 정신병원 등 감염병 취약 계층 환자와 인천공항 입국 단계의 내·외국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등 다양한 공공 의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.

* 치료현황(4.20일 기준): 입원 106명, 퇴원 42명(사망 4명 포함), 치료 중 65명 (퇴원 후 재입원하여 치료 중인 1명 포함)

□ 국립정신건강센터(센터장 이영문)는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서 2016년 출범 이후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치료는 물론 국가 정책 수행의 역할까지 아울러 수행하고 있다.

○ 청도대남병원 및 대구 제2미주병원 등 정신병원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총 58명(의사 6명, 간호진 52명)의 인력을 청도대남병원, 국립마산병원에 파견하여 의료지원을 하였고, 확진자를 전원받아 4월 21일 18시 기준 총 77명의 확진자를 격리병동에서 치료하였다.

* 청도대남병원 환자 63명(2월 26일 이후), 제2미주병원 환자 14명(3월 28일 이후) 치료

○ 또한 국립중앙의료원, 국립마산병원 등과 협력하여 증상이 완화되거나 악화될 경우 이송하는 등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증상에 따라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, 격리 해제된 환자는 국립부곡병원, 국립공주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고 있다.

□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및 의료진과의 면담에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‘덕분에’ 감사카드를 수여하고, 앞으로도 “중앙임상위원회를 통해 민간·공공 병원 및 의료진과의 협업 체계를 발전시키고, 코로나19 확산세가 현저히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* (덕분에 챌린지) 일선 의료 현장에서 헌신해 온 의료진의 사기·자부심 진작을 위하여, ‘의료진 덕분에’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뜻을 담은 의료진 응원 홍보활동

○ 또한 ‘코로나19 전원지원상황실’을 방문하여 “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배분TF의 협력을 통해 중환자 시·도간 전원 지원, 코로나19 정신질환 환자 치료·전원시스템 마련 등 다양한 환자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사망률 관리에 크게 기여하였다”며 격려하였다.

□ 이어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 및 의료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감사카드를 수여하며, “청도대남병원, 제이미주병원 등 정신병원 집단 감염 발생 시 4개 국립정신병원, 국립마산병원 등과 협력하여 취약한 시설에서의 환자 신속 이송 및 치료에 앞장서 주었다”고 전했다.

□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이날 두 곳 방문을 마치면서 “최전선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환자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들께 감사드린다”라고 전했다.

○ 아울러 “앞으로도 코로나19 환자가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말했다.

< 참고 >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코로나19 대응 현황

참고

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코로나19 대응 현황

1. 국립중앙의료원 대응 현황

□ 코로나19 확진자 치료

- 코로나19 위기국면에서 국립중앙의료원(NMC) 내 이동형 음압기 설치를 통한 음압격리병상을 확보(78병상)하여 확진자 치료
 - 4. 20. 현재 입원 106명, 퇴원 42명, 치료 중 65명

□ 확진자 전원 지원

- (개요) NMC 내 응급의료상황실 플랫폼을 활용하여 2.23일부터 '코로나19 전원지원상황실' 운영 중
- (중증환자 전원 지원) 시·도 내 전원 추진이 어려운 중증환자의 시·도 간 전원 지원
 - 전원지원상황실에서 중증환자 수용 가능한 병상을 확인하고 요청, 수용 의료기관 의료진과 논의하여 전원 진행, 이송은 소방청에서 담당
 - 4. 21. 18시 기준 120명 전원 지원
- (검역 단계 확진자 전원 지원) 인천공항검역소 특별입국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확진자를 NMC 음압병상으로 전원 지원
 - 4. 21. 18시 기준 34명 전원 지원 및 원내 치료
- (경북지역 중등증 환자 전원 지원) 환자 발생이 많지만 의료자원이 부족한 경북지역의 특별관리를 위해 경북지역 중등증 환자 전원 지원
 - 4. 21. 18시 기준 14명 전원 지원 및 원내 치료
- (정신질환 확진자 전원 지원) 일반 환자와 달리 정신과 전문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확진자의 전원 지원
 - 4. 21. 18시 기준 11명 전원 지원

*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직접 전원된 1명 포함

2. 국립정신건강센터 대응 현황

□ 개요

- 청도대남병원 및 대구 제2미주병원 등 정신병원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에 따라, 환자 이송 및 치료 등 대응체계 구축·운영
-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조하여, 중증환자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하고 경증환자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직접 치료
 - 환자 격리 해제 시에는 국립부곡병원 등과 협조하여 이송, 치료
- 청도대남병원 및 제2미주병원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국립마산병원에 의료진을 파견하여 의료지원

□ 대응 현황

- (병상) 격리병동 2개 병동(26병상) 개설
- (청도대남병원) 총 입원자 수 63명, 격리 해제(국립부곡병원 이송) 62명, 치료 중 1명 (2.26~)
- (제2미주병원) 총 입원자 수 14명, 국립중앙의료원 전원 4명, 치료 중 14명 (3.28~)
- (의료지원) 총 58명(의사 6명, 간호진 52명) 인력 파견(청도대남병원, 국립마산병원)